

광주권 올 1분기 아파트 9개단지 4600가구 분양

작년 동기비 1000여가구 늘어 분양시장 기지개 혁신도시·목포 등 대단지 공급...내집마련 호기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이달부터 이른 봄 기지개를 편다. 올봄 대규모 분양시장이 열리는 만큼,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광주지역 부동산업계와 부동산사랑방(homesrb.co.kr)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포함한 광주광역시권 주거단지는 올 1분기에 9개 단지 4600여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 6개 단지 3600여가구에 비하면 1000여가구가 더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지앤디도시개발이 7

일 서구 풍암동에 골든타워팰리스 191가구를 분양한다. 골든타워팰리스는 북층형 오피스텔로 56·59·60·73㎡로 구성되며 2~3인 가족을 위한 멀티 와이드형 평면설계가 눈에 띄는 점에 있다.

이어 호반건설 및 리젠시빌주택의 월남2차 호반베르디움 784가구가 이달 중 분양에 들어간다. 동구 월남지구 2·2블록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59A㎡ 186가구, 59B㎡ 58가구, 59C㎡ 180가구, 78A㎡ 360가구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서구 쌍촌동 운천

역과 쌍촌역 사이에 있다.

광주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상무 광명메이루즈도 이달 중 일반분양을 한다. 68㎡, 84㎡, 북층형 120㎡ 등 496가구로 구성되며 주상복합아파트 형태다. 견본주택은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에 있다.

3월에는 이지건설이 광산구 선운지구 2블록에 69㎡ 562가구 선운2차 이지더원을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서구 광천동 60번지에 있다. 또 중흥동주택개발사업조합과 영무건설이 북구 중흥동에 중흥영무에다음을 분양한다. 15층, 6개 동인 중흥영무에다움은 일반분양분 309가구의 입주자를 기다린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가 들어서는 나주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이 다양하게 선보인다.

8일 59㎡ 344세대, 74㎡ 264세대, 84㎡ 92세대 등 총 700세대로 구성된 나주시지역주택조합(가칭)이 견본주택의 문을 열면서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3월에는 중흥건설이 혁신도시 B15블록에 중흥S클래스 993가구를 분양한다. 중흥S클래스는 71~84㎡ 면적으로 구성된다. 대방건설도 나주 대호지구에 59㎡ 대방노블랜드2차 370여가구를 공급한다.

이건우 부동산사랑방 팀장은 "지난해 지역 미분양 물량은 전국 최하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분양실적이 좋았다"며 "올봄 분양시장에는 실속 있는 단지들이 포함된 만큼 각 특성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편, 목포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5년까지 목포에 아파트 4800여가구(임대 1981, 분양 2830)가 공급된다.

올해 2지구 및 백련마을 택지개발 사업은 올해 11월 골드디움 5차(493가구)와 골드디움 6차(325가구)가 입주하고, 골드클래스 7차(319가구)는 내년 11월에 입주한다. 또 옛 중앙시장에 들어설 복합빌딩 트윈스타는 올해 6월 공사차 마무리됨에 따라 204가구가 들어선다.

산정동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2015년 완료되며 1391가구(임대 540, 분양 851)가 입주한다. 죽교동 신안실크밸리7차 아파트는 내년 8월 완공, 657세대가 입주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소기업중앙회 목포지부 개소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남권 중소기업 업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6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목포지부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목포지부(지부장 조인석)는 공제기금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광주까지 왕래가 힘든 전남 서남권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편의제공 및 중소기업 서비스 활동 강화를 위해 세워졌다.

개소식에는 주영순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오봉 전남경제부지사,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등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목포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목포지부에서

는 앞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보증공제, 노란우산공제, 손해공제 등 중소기업의 사업비용 감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업무를 중점수행하게 된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은 "광주 방문에 시간이 소요됐던 목포 및 신안, 진도, 해남, 완도, 강진, 영암, 무안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목포지부는 무안, 남양,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에 입주했으며 전남도청과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계 200대 부자중 70% 자수성가형

이건희 108위 정몽구 194위...1위 빌 게이츠

세계 200대 부자 가운데 스스로 재산을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블룸버그의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4일(뉴욕 시간) 기준으로 세계 200대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형'은 139명(69.5%)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61명·30.5%)의 2배 이상이다.

한국인으로는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각각 108위(103억 달러·11조1000억원), 194위(65억 달러·7조원)를 차지했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정주영 회장의 아들인 이들은 상속형으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 갑부 10명 중에서는 9명이 자수성가형이다. 대형 할인매장 체인인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며느리 크리스티 월튼(9위·364억 달러)만 상속형이다.

세계 최고 부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748억 달러·8조3000억원)이다.

2위는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671억 달러·72조3000억원), 3위는 패션 브랜드 자라(Zara)를 소유한 스페인 인디텍스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592억 달러·63조8000억원), 4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564억 달러·60조8000억원)이다.

/연합뉴스



K-water 여수 기름 제거 봉사

여수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름 제거 작업

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여수권리단 물사랑나눔봉사단원 40여명이 지난 5일 원유 유출사고 피해 현장인 여수시 신덕포구 해수욕장을 찾아 오염물을 제거하는 갖가지 작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삼성전자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 돌파

작년 4400만대 판매

삼성전자가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30%를 돌파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판매(공급 기준)해 시장점유율 31.6%를 기록했다고 6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07년 4.7%에서 시작해 4년 동안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11년 17.6%로 처음으로 두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점유율은 26.6%였다. 제품 판매량도 2007~2010년 1920만대, 2012년 3290만대로 증가

세를 보였다.

반면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까지 매년 늘었지만,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2012년 11%포인트에서 지난해 4.7%포인트로 줄었다.

한편 LG전자는 120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8.6%를 기록하며 3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07.89 (+16.57)	▲ 코스닥지수 509.87 (+4.25)	▼ 금리(국고채 3년) 2.85% (-0.01)	▲ 원·달러 환율 1079.00원 (+1.10)
-----------------------------	---------------------------	-------------------------------	-------------------------------

1월 수입차 1만4849대 등록...역대 2번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1만 4849대로 작년 1월부터 20.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1월 판매량은 작년 7월(1만4953대)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자동차시장 성수기인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19.7%가 늘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3408대로 1위를 차지했고, 전담 폴크스바겐에 밀려 3위에 그쳤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2773대 팔려 다시 2위로 올라왔다. 이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는 각각

2700대, 2137대 팔려 독일차 브랜드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1월 한달간 가장 잘 팔린 수입차는 '만년 1등' BMW 520d(809대), 2위는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650대), 3위는 벤츠 E220 CDI(576대)에 돌아갔다. 다음은 포드(757대), 도요타(393대), 닛산(389대), 렉서스(356대), 크라이슬러(345대), 미니(301대), 랜드로버(246대), 혼다(232대), 볼보(218대), 재규어(168대), 푸조(148대) 순이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내방 고객 경품 증정 이벤트

기아자동차는 이달 28일까지 기아차 영업점 방문고객 및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 모바일 기아(m.kia.com)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응답하라! 5천만 내방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 30명에게 스마트 카메라, 2등 300명에게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

권(각 5만원), 3등 응모고객 전원에게 캔커피 2개 또는 현대해상 신주말 교통상에 보험 무료 가입 증정하는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 영업점을 방문해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기아차 홈페이지, 모바일 기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를 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줄어든다

보험사 지급기준 구체화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고자에 할증되는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은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 비용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일반인이 렌터카를 이용할 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통상 요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2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렌터카 요금은 3521억원으로, 2004년(687억원) 대비 4배를 넘었다. 이 같은 렌트비 과다 청구는 결국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NEW

그린알로에 "그린퍼맨 프로바이오-50" 출시!

살아있는 유산균 5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로 장건강을 챙기세요.

프로바이오틱스로 지키는 **장** 건강

"그린퍼맨프로바이오-50" 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제품입니다. 부원료로 곡류혼합효소 발효분말 과일혼합효소발효분말 비타민C, 건초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린알로에는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함유되지 않은 3주제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고객센터 080-234-6588